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보 도 자 료</h1>		<i>이제는 인천입니다</i>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4월 30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문화정책과	담 당 자	• 문화콘텐츠팀장 조항용 ☎440-3991 • 담 당 자 곽성호 ☎440-399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5월 17일 개막
- 5월 17일 개막식 시작으로 5일간의 따뜻한 여정 -
-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발돋움 -

인천시는 아시아 유일의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5월 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따뜻한 여정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올해 열두 번째 맞이한 디아스포라영화제는 5월 17일(금) 오후 7시 개막으로, 5월 18일(토)부터 21일(화)까지 인천 애관극장과 한중문화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영화상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이 시작된 도시이자 이주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인천에서, 차별과 편견 등으로 소외받는 디아스포라인들의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나누고자 기획된 국제 영화제다.

특히, 올해는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자, 개관 30주년을 맞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준비했으며 최근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요기조기 음악회(버스킹)’와 김윤아·장기하의 축하공연, 개막작 상영 등이 진행된다.

18일부터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열리는 본 행사에서는 75여 편의 영화 상영 외에 감독과의 대화, 체험 부스, 폴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상영 프로그램 등 세부 일정은 5월 초에 인천영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는 디아스포라영화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즐겁게 다가가기 위해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공연, 시민참여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화합과 공존, 존중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인천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팀(032-440-3992) 또는 인천영상위원회(032-435-7172)로 문의하면 된다.

